



매화나무

- ◆과명 : 장미과
- ◆학명 : *Prunus mume*
- ◆영명 : Papanese Apricot
- ◆한명 : 梅花樹, 品字梅, 古梅
- ◆일명 : うめ



최명섭
임업연구원

자연을 누구보다 사랑한 우리의 옛조상들은 한송이 꽃이나 한그루 나무조차 예사롭게 보지않았다.

더우기 풍류를 즐긴 선비들은 작약을 문앞에 심는 꽃이라 하여 근객(近客)이라 불렀고 모란은 귀한 모양을 가졌다하여 귀객(貴客), 가을 서리를 견디어내는 국화는 수객(壽客), 서향은 사랑하는 님의 몸내음을 풍긴다하여 가객(佳客)으로 불렀다. 또 연꽃은 움직이지 않는 향기를 가졌다하여 정객(靜客)으로, 장미는 가시가 있으나 향기가 야성적이어서 야객(野客), 계수나무는 신선과 어울린다하여 선객(仙客)으로 각각 부르고 있다.

이 가운데 4군자의 하나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관상수로

유명한 매화, 혹은 매실은 옛부터 꽃이 깨끗하고 향기가 맑아 청객(請客)으로 불리고 있으며 수 많은 문학작품이나 그림의 소재가 되어 왔다.

1999년초 외교통상부에서 우리 임업연구원으로 일본에서 와룡매(臥龍梅)라는 식물도입을 의뢰한바있어 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여 안중근의사 추도식에 맞추어 1999년 3월 26일 남산에 홍매와 백매 각 1본을 식재한바 있다. 일본에서 보내온 백매 2본과 홍매 2본중, 홍매 1본은 해충이 발견되어 일본 식물검역소에서 폐기되고 백매 2본과 홍매 1본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남산에 홍매 1본, 백매 1본이 식재되었고 백매 1본은 우리 임업연구원에 보관 증식 중이며 금후 대량으로 번식하여 각도에서 조성중인 수목원에 분양할 계획이다.

그 사연은 임진왜란 당시, 그러니까 1593년 경 일본의 서암사라는 사찰의 중건자인 "다테 마사무네"가 전남지방에서 채취하여 일본으로 가져간 매화나무로서 옆으로 누워자라는 특성 때문에 와룡매(臥龍梅)라

고 부르고 뛰어난 자태와 진한 꽃향기 및 열매를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학계에서 보고 된바 없고 한국에서는 절멸된것으로 보이는 와룡매를 1998년 9월 5일 일본 미야자기현 소재 대림사라는 사찰에서 개최된 안중근의사 추도 법회에 참석한 서암사 주지가 행사후 가진 한일 친선 간담회에서 와룡매를 한일친선의 상징으로 남산 안중근 기념관에 식재토록 한국에 보내고 싶다는 뜻이 전하여져 1999년 3월 26일 추도식에 맞춰 한국하게된 사연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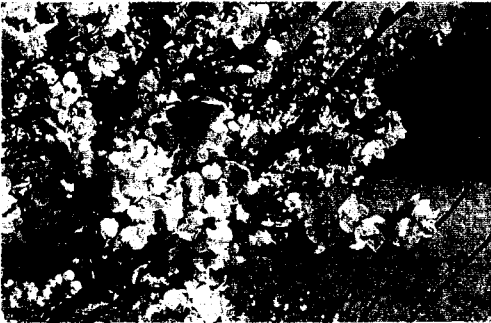
1. 생태적 특성

중국원산의 낙엽활엽소교목으로 우리 나라에는 약 2000년 전에 도입되어 정원수로 식재하고 있으며 본재로 많이 키우고 있다. 정상적으로 생육하면 높이 6m, 직경 60cm 정도 자라고 우산모양으로 아름다운 수형을 갖는다. 북서향이 막힌 양지바른 곳이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어디에서나 잘자라고 습기가 적당하고 토심이 깊으며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왕성한 생육을 한다. 염해에는 약한

편이어서 해안지방에서는 잘자라지 못한다.

2. 형태적 특성

하나의 줄기가 올라와 몇개의 가지끝에서 다시 잔가지를 내어 꽃을 피우며 수피는 회녹색이다. 잎은 어긋나고 계란모



양으로 원저이며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다. 잎 길이는 4~10cm이고 양면에 털이 약간 있으며 뒷면 맥액에 갈색모가 있다. 꽃은 전년도 잎 겨드랑이에서 1~3개씩 달리며 3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향기가 있으며 꽃의 색은 다양하며 기본종은 분홍색으로 핀다. 열매는 핵과로서 둥글고 지름 2~3cm로 겉은 짧은 털로 덮혀 있으며 6~7월에 녹색에서 황녹색으로 익으며 신맛이 난다.

유사종으로 흰꽃이 피는 흰매실(var. alba Rehder), 흰꽃이

겹으로 피는 것을 만첩흰매실(for. albaplana Bailey), 붉은 꽃이 겹으로 피는 것을 만첩홍매실(for. alphanthii Rehder)이라 하며 그외에도 교잡하거나 자연교잡된 수많은 재배품종이 있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매화의 아름다움은 잎보다 먼저 눈속에서 꽃피우는 설중매(雪中梅)에 있다. 이른 봄에 연분홍색 꽃봉오리를 터뜨려 은은하고 조용한 향기를 전하고 꽃잎은 선명하게 다섯으로 갈라져 어디서 보나 좌우대칭을 잘 이루고 있어 안정감을 준다. 삭막한 겨울을 막 지나 다른 나무는 겨울눈(冬芽)에 물이 오르기 시작하면 꽃을 피우는 매화는 봄을 알리는 영춘화로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종래에는 담 밑이나 안뜰에 식재하였으나 양식정원의 잔디밭에 식재하여도 운치가 있다. 매화는 먼곳에 심는 것 보다는 가까이 심어 매화의 향기를 즐기는 것이 식재 요령이라 하겠다.

한때 새로운 조경수에 밀려 매화의 식재가 쇠퇴하는 듯 하였으나 근래에 와서 다시 모든 것이 복고조가 되면서 문인이나 묵객만 즐겨 식재하던 매화를 일반 대중도 다시 찾게 되었다.

4. 번식법

번식은 주로 접목으로 하며 삽목과 파종에 의하기도 한다.

○ 파종

가을에 종자를 채취하여 흙에 파묻어 두었다가 다음 해 봄에 파내어 6cm간격으로 파종한 후 볏짚을 덮어 건조를 방지한다. 실생묘는 2~3년 길러서 새끼 손가락 굵기만 해지면 접붙일때 대목으로 사용해도 좋고 그대로 길러 정원수로 식재한다.

○ 삽목

종자로 키운 나무에서 2~3월에 지난해에 자란 충실한 가지를 20cm 길이로 잘라 2/3정도 묻히게 꽂는다. 삽목상은 발흙을 부드럽게 하여 꽂은후 건조하지 않게 관리한다.

○ 접목

3월 초순경 실생묘나 복숭아의 실생묘를 대목으로 하여 접목한다. 접수는 지난해 자란 꽃이 없는 가지를 사용하며 눈을 2~3개 붙여서 잘라 절접하는 요령으로 접붙이기를 하며 9월경 눈접(芽接)도 할 수 있다. 접목은 좋은 품종일수록 활착율이 나쁘며 수직으로 자라는 것이 접목에 유리하다.

5. 그 밖의 용도

분재소재로도 널리 사용되며 열매는 매실이라 하여 귀중한 약재로 쓰이며 건강 보조식품으로 음료수, 잼, 엑스, 매실주를 담가 먹기도 한다. **조경수**